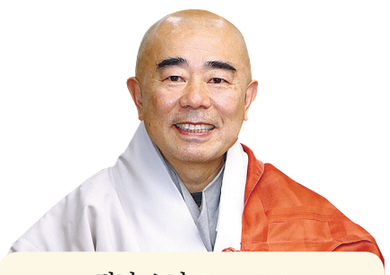
코로나 & 기후위기 & 4차산업

신년 진단 언택트 대담

영성 고갈 시대… 불교, '사회치유' 이끌어야



정념 스님 월정사 주지

문명의 전환 외면해선 안돼
새로운 아젠다 제시 없다면
외면 받고 존재감도 가라져

영성치유 등 사회적 요구에
불교의 근본적 가르침이 답
현대적 언어로 대중화 해야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

코로나사태, 위기이자 기회
비대면 콘텐츠 개발도 시급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추진

전통사찰의 환경보존 기여도
국가·국민으로부터 인정돼야
마음·문화 주도하는 해 되길



민정희 국제기후종교네트워크 사무총장

코로나 위기는 자연의 경고
너무 거대한 문제라 무관심
외면한다면 '인류공멸' 자명

4차 산업혁명에 의한 큰변화
인간 소외·우울감 심화될것
'마음'에 더 깊이 주목을 해야

A14면에서 계속

석길암: 불교가 새로운 가치를 개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갖고 있는 오래된 가치가 중요하죠. 불교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인식하는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사회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가치입니다. 다만 옳고 그름이라는 시비분별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야말로 이 시대 불교가 줄 수 있는 대단히 유용한 가르침이자, 코로나 시대일수록 더 강조돼야 하는 불교적 가치라고 봅니다.

민정희: 코로나 펜데믹의 근본 원인은 과거 신성하게 여겨졌던 영역에 대한 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이 대표적이죠. 그로 인해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다양한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하고 해하지 않는 것, 바로 오계 중 '불살생' 입니다.

아무리 교리가 좋아도 실행하지 않으면 불교의 정신이 뭔지, 가치가 뭔지 대중에게 알리 수 없어요. 불살생의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어떤 형태로 사회에 제시하고, 나아가 실천을 이끌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육식을 줄이고 소비를 줄이는 것이 대단히 윤리적인 행동이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가치있는 행동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화두를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념 스님: 영성 고갈의 시대입니다. 물질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또 물질중심으로 발전해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영성은 자연스레 고갈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등 사회적 우울감에 고통 받고 있어요. 우리 사회공동체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 이것이 곧 종교의 관점이며 역할입니다.

각자도생의 시대, 극단적인 개인주의 속에서 최소한 공동체와의 연결성을 높여줄 수 있는 가치도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불교가 우리 마음의 문제, 또 연기적 공동체관을 현대적 언어로 쉽고 대중적인 형태로 전달해야 합니다. 명상이나 힐링 등 영성 회복과 치유 분야는 불교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죠.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관점에서 많은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 불교

김주일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수준입니까.

민정희: 인간이 지구상 나타난 이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기후입니다. 과거에도 인간이 영향을 미친 것이 있긴 하지만, 공기나 바다의 화학적 성분 자체를 바꾸거나 지구 온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인 사례는 없었죠.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온도가 1.2℃ 정도 상승했고 해수면이 20cm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고 계절변화에 익숙해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죠. 남반구의 경우 그 변화가 대단히 직접적이고 심각합니다. 인도의 경우 기후위기로 인한 자살이 6만5000건에 달하고,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죠.

우리나라 역시 식량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47% 밖에 안되는 세계 5대 식량 수입국이기 때문이죠.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 그동안 우리나라에 식량을 수출하던 나라들이 더 이상 식량공급을 중단하게 될 것이며,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겁니다.

김주일 기후위기, 사회적 무관심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무관심의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민정희: 오히려 너무 거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이나 이익과 관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굉장히 큰 문제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이 뚜렷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불교계가 음식물 쓰레기 문제의 대안으로서 '빈그릇 운동' 을 확장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세계 배출되는 탄소량의 8%가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에, 불교계가 대사회적운동의 차원에서 캠페인이나 전환운동의 일환으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념 스님: 환경 문제는 전지구촌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모두가 함께 특단의 노력을 해나가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중차대한 문제이나, 절박하게 느끼지 못할 뿐이죠. 궁극적으로는 종교가 함께 가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생명의 문제이고 지구공동체의 문제이며, 모든 생명 존폐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생활 속 실천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국가가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결국 탐·진·치라는 근본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현대 문명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거시적 관점에서 종교계가 인식전환운동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곧 종교적 가치의 실현이기에, 불교가 그 어떤 종교보다 관심갖고 앞장서야 할 것으로 봅니다.

4차산업 & 불교

김주일 코로나19 확산이 4차산업 시대를 앞당겼다고 하죠. '언택트'로 대표되는 디지털 일상으로 전환은 향후 불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전망해주신다면.

정념 스님: 불교, 나아가 종교도 결국 우리 사회 현상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영역입니다. 변해가는 시대에 발맞춰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존재의 의미도 사라집니다. 물론 불교의 가치나 세계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유효한 사회관이겠지만, 변화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나타나 정신적 영역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심리상태, 특히 우울증은 50% 이상이 될 것이란 진단이 많습니다. 결국 영성의 문제는 더 심각해 질 수밖에 없죠. 영성이 고갈된 만큼 그에 대한 요구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불교가 어떻게 답해야 할 것인가, 그 지점에 불교의 역할이 있습니다.

석길암: 지난 1년간 우리 사회는 언택트로 인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비추어 불교의 강점을 생각해 보면 결국 마음치유적 요소, 문화치유적 요소로 귀결됩니다.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불교에 강점이 될 것이란 생각을 하죠. 문제는 과연 불교의 대응과 준비인데, 대단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결국 호기(好期)임에도 잘못하면 실기(失期)할 수 있습니다.

민정희: 과거는 인간으로부터 자연이 소외받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기계로부터 인간이 소외되는 시대가 될 수 있어요. 자연히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 속에서 종교적 해답에 의지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간 존재로서의 소외감에 대해 불교는 어떤 답을 해줄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적 대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마음입니다. 마음의 종교인 불교가 어떻게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김주일 언택트 포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언해주십시오.

정념 스님: 언택트 시대에 걸 맞는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데이터 구축은 우리 불교계의 중대한 과제죠. 데이터는 온라인·디지털 시스템의 연료와 같아서, 이것이 없다면 제대로 된 가동이 어렵고 전달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불교계가 앞으로 빅데이터에 근거한 포교 및 영향, 미래 예측을 통한 유무형의 기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준비라고 생각됩니다. 오프라인의 존재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가만히 앉아서는 더 이상 대중과 만나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쉼 없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도록 해야 하죠. 그 지점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라고 봅니다.

석길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초연결사회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대세를 뒤집긴 힘들죠. 초연결사회에서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그에 걸맞게 활용할 준비가 돼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기본적으로 불교의 스토리 콘텐츠들이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되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폭넓게 활용되는 가운데, 불교의 가치와 정신이 확산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디지털 콘텐츠 활용은 결과적으로는 오프라인 즉, 실제 공간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충분한 콘텐츠를 제공하되 그것이 불교계의 자원과 어떤 지점에서 연결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아주 조심스런 접근과 데이터 연구, 활용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종단이나 종립학교, 학술기관 등이 공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이 쉽도록 가공하는 것이 포교활성화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정희: 시민사회활동가이자 불교 운동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공감합니다. 생태·환경적 이슈와 관련해 경전 구절이나 사례, 스토리를 활용할 경우 불교적 가치에 기반한 대안 제시에 훨씬 설득력이 생기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이에 대한 접근이 단편적이고 쉽지 않아 아쉬움을 느낀 적이 많습니다. 데이터화 된다면 대단히 의미 있고 유용한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2021 謹賀新年 신축년

(주)보광석재

(주)보광석재는 1983년 창립한 이래로 우리 불교의 우수한 전통 석조 문화를
계승·발전하고자 기획에서부터 설계, 제작, 설치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매순간 최고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찰 및 문화재 전문의 석조회사입니다.

대표이사 김한열 합장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해수관음보살상

본사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석재단지길 38 전시장 : 경북 고령군 운수면 운용로 523 전화 : 054-955-8888~9 FAX : 054-955-8890 E-mail : bkstone601@naver.com